

# 사옥이전 및 창립 31주년 기념식

“레이블 글로벌리더로 도약할 것”



(주)삼원프린테크(대표이사 박제덕)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사옥이전 및 창립 3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.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국회의원,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, 전 국회의원인 신하철 고문 등의 내빈을 비롯하여 200여 인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. 박제덕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“사옥 이전 및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협력사들과 고객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”며 “지금 삼원프린테크가 세계적인 의류 레이블을 인쇄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삼원프린테크 임직원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종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“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원프린테크야말로 칭송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기업이며 조금이라

# ! 및 창립 31주년



1. 삼원프린테크 사옥이전기념 테이프커팅에 참석한 내빈들 2. 삼원프린테크 박제덕 대표이사 3. 삼원프린테크 사옥이전기념 행사  
4. 삼원프린테크 새로운사옥을 둘러보는 내빈들 5. 축사를 하고있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

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“삼원프린테크 박제덕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며 “어렵고 힘든 인쇄업계 내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최신 장비를 도입해 왔고 이것이 장인정신과 조화를 이뤄 삼원프린테크를 일류 기업이 되게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## 기술혁신, 최신 설비 도입으로 지속 성장

삼원프린테크는 지난 1980년 서울시 중구 예관동에서 삼원인쇄공사로 창립한 이래 ISO9001, 14001을 비롯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, FSC 인증 등을 획득해 지속적으로 기술력 향상에 힘써왔다. 또한 최첨단 6색 UV기계 및 다이커팅기, 레터프레스 7색기, 8색기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인 Target로부터 직접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또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다.

한편, 창립 31주년을 맞아 이승률 이사(23년), 김시한 실장(18년) 등 장기근속 직원 7명에 대해 수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 그 의의를 더했다.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신사옥 투어 등으로 이어졌으며 2부 순서로 건배제의에 이어 만찬이 진행되었다. ☺

김상호 부장 kshulk@print.or.kr